이코노&비즈 피플

박 재 순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ICID 광주총회로 한국 물관리 기술 위상 높여"

〈국제관계배수위원회〉

60여개국 1200명 전문가 참여

광주선언 채택…관개 배수 중요성 강조

시스템 현대화 등 전회원국 동참키로

"인도 갠지스강 등 5개 대륙을 대표하는 강들의 물을 한데 모으고 마지막으로 개최지 영산강 물을 더해 세계 6대륙의 물이 하나된 합수제의 감동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농업분야의 최대 국제행사인 '2014 국제관개배수위원회(ICID) 광주총회'(9월14일~9월20일)를 성공적으로 치러내고 일상으로 돌아간 박재순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20일 "아직도 설레고 흥분된다"며 광주에서 열린 ICID 총회가 인생일대 격정과 환희의 최고 순간이었음을 감추지 않았다.

박 전사장은 "'기후변화와 농촌용수 확보'를 주제로, 60여 개국에서 1200명의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2014 ICID 광주총회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됐다"며 민주와 평화의 도시, 농도 호남인 답게 대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아끼지 않은 광주·전남의 시·도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특히 "이번 ICID 광주총회에서 광주선언을 통해 식량 생산성 향상과 식량안보 실현, 농촌지역발전을 촉진하게 됐다"며 "기후변화에 따른 관개 사업의 측정장비 설치, 관개시스템의 현대화 등 명확한 진단과 영향성 평가, 정책수립단계에서의 통합적 노력을 위해 전회원국이 노력하기로 했다"고 대회의 의미를 두었다.

박 전 사장은 한국농어촌공사 측의 제안으로 ICID 광주총회에서는 처음으로 진행한 '개발도상국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에도 큰 의미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ICID 광주총회가 식량 안보와 농촌 지역개발을 위한 현안을 논의하고 도전적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가 됐다는 점 이외에도 이번 대회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물관리 기술과 물관련 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수자원 선진국으로서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공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다만 여러통로를 통해 우리겨레인 북한의 참가를 모색했지만 성사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그는 준비가 짧았고, 북한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 여건이 좋지 않아 끝내 북한 참여가 불발에 그쳤다며 다음을 기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아쉬워 했다.

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관련 한국농어촌공사 이상무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의 노고에도 감사하다는 마음을 내비쳤다.

박 전 사장은 내가 한국농어촌공사 CEO 재직 당시 2014 ICID총회를 광주에 유치한 산파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공동위원장을 맡게하는 등 이상무 사장의 배려가 없었다면 '농업용수 분야의 UN'이라는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없었을 것이고 빛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큰 대회를 치른 이후라 좀 쉬셔야 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열정을 감당하지 못해 그럴 순 없다"고 단호하게 답했다.

박 전 사장은 현재 농촌 지역과 호남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인 (사)호남사랑(이사장 김인숙)에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6월에는 ICID총회를 준비하는 바쁜 와중에도 나주 금천면에서 호남사랑과 동신대학교 한의학과 학생들과 함께 농어촌 지역 한방 의료봉사활동에도 참여했다.

끝으로 그는 "아직까지는 여러 곳에서 불러줘 강연도하고 농촌 지역 재능기부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 보람이다"며 "앞으로도 기회가 닿는한 모든 노력을 다해 농촌경제 살리기와 환경개선 사업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5만원권 어디로 갔나

3분기 환수율 19.9% 첫 10%대 추락…지하경제 악용 우려

지하경제 논란에 빠져있는 5만원권의 환수율이 발행 첫해를 빼고는 처음으로 지난 3분기에 10%대로 떨어졌다. 3분기 환수율은 19.9%다. 이 기간에 한국은행 금고에서 빠져나와 시중에 풀린 5만원권이 1천장이라면 한은에 돌아온 5만원권은 약 199장에 불과했다는 얘기다. 또 대형마트·백화점이 발행한 액면가 30만원 이상의 고액 상품권이 1년새 2배로 불어나 지하경제에 악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7~9월 발행된 5만원권은 4조9410억원에 달했지만 환수된 5만원권은 9820억원으로 환수율이 19.9%에 그쳤다. 분기 환수율이 이보다 낮은 적은 2009년 6월 첫 발행 이후 그해 2분기(0.1%)와 3분기(1.1%)를 빼고는 없다. 2009년 4분기만 해도 24.7%로 높아졌으며 새 화폐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2012년 4분기에는 86.7%까지 상승했다.

이와 관련, 한은 관계자는 "올해 3분기에는 추석을 앞두고 5만원권 공급물량을 늘린 요인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5만원권의 환수율 하락이 지하경제와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은 계속 나오고 있다.

최근 한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은 "개인이나 회사가 현금 형태로 재산을 보유하거나 세금을 피하기 위한 현금거래를 늘리는 것"이라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은은 5만원권을 둘러싼 지하경제 논란이 거세자 올해 처음으로 일반인과 기업을 상대로 화폐 수요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여 연내 공표할 방침이다.

5만원권은 정부가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작년부터 환수율이 급락,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이 탈세 등 지하경제 수요를 오히려 늘린 게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돼 왔지만 정확한 원인 분석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다만, 한은은 저금리 시대를 맞아 현금 보유성향이 상승한 점 등도 5만원권의 환수율 하락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인4색 KB금융지주 회장 후보

KB금융지주 회장 선출을 앞두고 각 후보들의 경합이 백중세를 보이고 있다. 자신만의 강점을 부각시키기에 여념이 없지만 막상막하의 접전에서는 강점보다 약점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높다.

지역에선 이들 후보 4명 가운데 김기홍 전 국민은행 수석부행장을 제외한 하영구 씨티은행장, 윤종규 전 KB금융 부사장, 지동현 전 국민카드 부사장 등 3명이 광주·전남 출신이라는 점에서 누가 낙점을 받을 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22일 명동 KB금융 본점에서 5차 회의를 열어 이들 후보 4명 가운데 한 명을 최종 후보로 선임할 예정이다.

"금감원 경력 천군만마"

김기홍 전 국민은행 수석부행장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출신인 김기홍 전 부행장은 '금피아(금융감독원+마피아)'가 아니냐는 지적에 정면 대응했다. 김 전 부행장은 "그런 식으로 따지면 나는 민간 연구소 등에서도 일했으니 '금피아', '연피아' 모두 해당된다"며 "전문가로서 영입돼 금감원에서 일했으며, 금감원에서의 업무 경험이 회장직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이 지금은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금융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라는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라며 "이러한 업무를 배우고 수행하면서 귀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주경야독…내 학력, 인간적 매력"

윤종규 전 KB금융 부사장 4명의 회장 후보 중 '학벌' 면에서 가장 '약한' 윤 전 부사장은 자신의 학력이야말로 인간적인 매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부사장은 광주상고를 나와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반면, KB금융 회추위를 구성하는 9명의 사외이사는 대부분 경기고, 경복고, 용산고 등의 명문고를 나왔다. 사외이사 9명 중 8명이 서울대 상대 출신이다.

윤 전 부사장은 "상고 출신으로 주경야독으로 대학을 다니면서 학업을 마쳤다"며 "누구보다 직원들에게 인간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매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연구원 경험 큰 무기"

지동현 전 국민카드 부사장 지 전 부사장은 연구원 출신으로서 은행권 경험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조흥은행에서 부행장으로서 재직하면서 국제금융, 기관금융, 자금관리 등 중요 업무를 모두 맡았다"며 "KB금융지주에서는 전략기획, 국민카드에서는 기획과 경영관리를 맡아 지주사 회장으로서 필요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고 밝혔다. 지 전 부사장은 1991년부터 10여년 간 금융연구원에서 근무한 후 2001~2003년 조흥은행 기관고객본부장 및 자금국제본부장, 2008~2010년 KB금융지주 부사장, 2011~2013년 국민카드 부사장 등 다양한 금융권 경력을 쌓았다. 그는 자신의 연구원 생활이야말로 금융지주사 회장 후보로서 가장 큰 강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외부출신이 외압에 자유로워"

하영구 씨티은행장

하영구 씨티은행장의 최대 약점은 KB금융 재직 경험이 없는 외부 출신이라는 점이다. 국민은행 노조는 씨티은행의 대규모 구조조정, 저조한 실적, 외압설 등까지 거론하며 하 행장을 '의혹 투성이의 외부 인사'라고 비판했다. 하 행장은 이런 비판에 거침없이 대응했다. "김옥찬 전 국민은행 부행장이 후보에 포함됐을 때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김 부행장의 사퇴 이후 어떤 근거로 내·외부를 가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는 윤 전 부사장, 김 전 부행장, 지 전 부사장이 각각 회계법인, 금융당국, 민간 연구소 출신으로 '순수 내부 출신'이 아님을 지적한 것이다. 하 행장은 "내·외부 출신을 가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외부출신이 외압으로부터 더 자유로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